

# 데카르트의 도덕론에서 고통과 배고픔의 문제

- 정신의 형이상학에서 인간의 도덕학으로\*

이 경 희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프랑스철학, 도덕철학.

**주요어** 데카르트, 인간, 도덕론, 이원론, 실체적 통합체, 감각.

**요약문**

데카르트의 도덕론은 그의 인간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에 기초한 사유와 연장 외에 ‘감각’을 제시한다. ‘감각’은 정신이나 신체 하나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감각은 정신과 신체의 결합, 즉 ‘실체적 통합체’를 통해 발생한다. 데카르트는 이 ‘실체적 통합체’를 ‘참된 인간’으로 규정하였다. 참된 인간 이해에 바탕을 둔 도덕론의 완성을 위해 데카르트는 감각을 통해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에 기초한 정신 우위의 형이상학만으로는 그의 인간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의 도덕론과 관련된 이번 연구를 통해 일부나마 데카르트의 인간론에 대한 이해에 균형을 잡아보고자 하였다.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09-327-A00214)

## 1. 들어가는 말

코팅엄(Cottingham, John)은 데카르트의 체계에 대한 근현대 해석가들이 사유, 연장과 나란히 감각(sensation)이라는 제삼의 범주를 데카르트가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왕왕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그가 또 다른 곳에서 데카르트를 ‘기계속의 유령’을 주장한 것으로 묘사한 길버트 라일의 비판이나 데카르트 당대의 인물인 아르노가 데카르트를 플라톤식의 ‘천사설’로 복귀하고 있다고 비판한 대목<sup>2)</sup>과 관련된 이 감각의 문제는 사실상 데카르트의 인간 이해와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인간 이해에 있어 그는 특히 영미 전통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오늘날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도식에 의존해 데카르트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몰두하고 나아가 정신과 신체의 두 항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오직 명료한 의식 상태의 정신으로만 파악하려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실제로 데카르트가 감각과 관련해 인간 이해에 대한 정신과 신체 이외의 제삼의 지평으로서의 ‘실체적 통합체’, 즉 인간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의 의미를 데카르트 도덕론의 관점에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학문에서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서설』<sup>3)</sup>에서 스콜라철학자들에 의해 전해진 ‘사변적 철학’을 우리

---

1) Cottingham, John, *A Descartes Dictionary*, 75쪽. 코팅엄이 여기서 근현대 해석가라고 한 것은 특정한 인물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특히 20세기 이후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 그의 여러 연구분야들 가운데서도 형이상학과 그에 따른 인식론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온 경향과 이런 과정에서 데카르트가 전형적인 이원론자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팅엄이 혹시 암시하고 있을 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구체적인 맥락이나 문제와 관련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대훈 역, 『데카르트』, 73쪽.

3) 이하 『방법서설』.

를 ‘자연의 주인이며 정복자로 만들어 줄 실천적 철학(philosophie pratique)’<sup>4)</sup>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1647년에 출판된 『철학의 원리』의 불어판 서문을 보면 도덕학이야말로 그가 염두에 두었던 대표적인 실천철학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완벽한 도덕 체계(*la plus parfaite morale*)의 구성이야말로 그의 철학 최고의 목적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다. 즉 그는 “‘도덕학(morals)’으로 나는 다른 학문들의 완전한 지식을 전제하는. 그리고 궁극적 단계의 지혜(*le dernier degré de la sagesse*)인, 최고이며 또 가장 완벽한 도덕 체계를 생각하고 있다”<sup>5)</sup>고 함으로써 형이상학의 뿌리, 자연학의 줄기, 그리고 세 분야의 중심 연구들, 즉 의학, 기계학, 도덕학으로 수렴되는 특수 학문들을 나타내는 가지들을 포괄하는 전체 ‘지식의 나무’에서 도덕학을 최상의 지혜를 얻는 분야로 은유하고 있다.<sup>6)</sup> 나아가 “‘철학’이라는 단어는 지혜에 관한 연구를 의미하며, ‘지혜’란 말은 일상적 사태들에서의 신중함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지침과 건강의 보존을 위해 그리고 모든 방법의 기술들을 발견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위해 인류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한 완벽한 지식 또한 의미하게 된다.”<sup>7)</sup>고 할 때 그가 목표로 삼았던 이상적인 통합 학문의 체계로 그려진 지식나무에서 실천철학으로서의 도덕학의 완성은 결국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삶’의 전망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데카르트는 따로 본격적인 도덕학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도덕학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에서 데카르트가 자연학이나 형이상학 등에서 요구하는 이원론적 인간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통합적 인간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후기 작품인 『정념론』에서 좋은 삶을 위한 일단의 실제적 처방을 제시하는 데 근접하고 있다. 좋은 삶을 여는 열쇠는 어떻

4) AT VI 62: CSM I 142.

5) AT IXB 14: CSM I 186.

6) AT IXB 14: CSM I 186.

7) 같은 책, 같은 곳.

게 신체가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정념을 지배하는 기술들을 고안해 내는 데 있다. 참다운 도덕철학자는 우리 고유의 인간 본성과 그것의 한계들에 관한 이성적 이해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는 견실하며 영구적인 만족을 위한 실제적 이득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우리 본성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신체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정감들의 심리학적 역학과 생리학적 기초와 관계가 있다.<sup>8)</sup> 이 글은 도덕철학자의 이러한 임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정신과 신체의 관계

정신-신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이 문제를 가장 결정적으로 촉발함으로써 결국 『정념론』의 집필로까지 이어지게 된 사례는 1643년 보헤미아의 엘리자베트 공주와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주는 영혼의 신체에 대한 관계에 관한 특수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주는 어떻게 비물질적인 영혼이 자발적인 행위들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적인 동물 정기들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sup>9)</sup> 여기서 데카르트는 이러한 질문이 “내게는 사람들이 내가 출판했던 작품들에서의 견해들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질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으로써 이 질문이 갖는 중요성을 내비쳤다<sup>10)</sup>. 그는 다음으로 영혼-신체 통합의 “원초적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시도한다. 그런데 앞서도 코팅엄이 지적했듯이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아르노는 한 반박문에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플라톤적 견해”인 인간은 “신체를 사용하는 영혼”이라는 견해를 암시하고 있다고 데카르트를 비판하였다<sup>11)</sup> 여기에

8) AT XI 369-70: CSM I 348.

9) 1643년 5월, AT III 661.

10) 1643년 5월 21일, AT III 664.

대한 답변에서 데카르트는 그가 [여섯 번째 성찰]에서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실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사용했던 논증을 불러내고 있다.<sup>12)</sup> 이 논증을 보면 데카르트는 그가 “고통, 배고픔, 목마름 등등의 감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마치 배안의 선원처럼 내 신체에 함께 현재 들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그것과 함께 영겨있고 따라서 나는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단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자연의 가르침”에 호소하고 있다.<sup>13)</sup> 물론 배안의 선원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는 이 비유를 영혼과 신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플라톤의 견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데카르트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플라톤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그가 그저 단순히 따로 있는 신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그의 신체가 손상되거나 또는 음식이나 마실 것을 필요로 할 때 그는 단지 그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고통,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에 관한 “혼란된 감각들”의 수단을 통해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라는 가정을 내세웠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추론 안에서 그는 이러한 감각들이 “신체로부터 구별되는 정신의 순수한 사고들”이 아니라 “정말로 신체와 통합되어 있는 정신의 혼란된 지각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또 다른 편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5)</sup> 같은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만일 천사가 인간의 신체 속에 들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감각들은 갖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외적 대상들에 의해 야기된 움직임들을 지각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런 식으로 실제의 인간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순수하게 지성적인 정신과 신체를 갖춘 영혼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있다.<sup>16)</sup> 사실상 데카르트의 이런 입장들은 신체들이 신체

11) [네 번째 반박], AT VII 203.

12) [네 번째 답변들], AT VII 228.

13) AT VII 81

14) Aristoteles, *De Anima* II. 1, 413a 8.

15) 1642년 1월 레기우스에게 보낸 편지, AT III 493.

가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정신에는 작용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르게 된다. 후기 철학인 『철학의 원리』에서도 데카르트의 공식적인 입장은 오직 지성적인,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정신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정신 안의 모든 것은 “우리 정신의 신체와의 밀접하고도 심오한 통합”에 관련되어 있음이 틀림없다<sup>16)</sup>고 명시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프랑수아판은 한 술 더 떠서 그러한 정신적 요소들이 통합체에 “귀속되어(attribuées 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sup>18)</sup> 더욱이 [다섯 번째 답변들]에서 그는 “뇌는 결코 순수한 지성적 작용에 사용되지 않으며 오직 상상하고 감각하는 데만” 사용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sup>19)</sup> 그에게 있어 신체에 통합되지 않은 정신은 오직 순수한 지성을 가질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정신에 작용하는 신체의 힘을 이끌어내는 어떠한 지각들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방법서설』에서도 우리는 데카르트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성적 영혼이 배 안에 있는 선원처럼 인간의 신체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단지 사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만이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덧붙여 우리들 것과 유사한 감각들과 욕구들을 갖기 위해서는 따라서 진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면 영혼은 더욱 밀접하게 신체와 결합되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sup>20)</sup>

### 3. 실체적 통합 - 원초적 개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공주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데카르트가 통합적 인간을 내세우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원초적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

16) AT III 493.

17) 『철학의 원리』 I, 48, AT VIII-1 23.

18) AT VIII-2 45.

19) AT VII: 358.

20) 『방법서설』, AT VI 59.

고자 한다. 사실상 [여섯 번째 성찰]에서 통합에 대한 증명이 우리의 내적 감각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데카르트는 엘리자베트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모든 감각들과 정념들은 통합체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분명하게. 사실상 이런 입장은 『철학의 원리』가 공표하고 있는 그의 공식적인 학설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는 이 편지에서 그 통합체에 대한 원초적 개념은 신체를 움직이는 영혼의 힘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데카르트가 인간이라는 대상에 대한 참된 이해, 결과적으로는 ‘참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표로 할 때 단순한 이원성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고 있지 않으며 실천적 학문을 위한 통합적 인간 유형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3의 기준으로 들여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데카르트 자신은 세 갈래로 구별하고자 애썼는데 이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가 단순한 이원성으로 환원하는 데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신체 문제에 관해 엘리자베트와 나눈 편지에서 그는 분명히 둘이 아닌 세 가지의 ‘원초적 개념들(primitive notions)’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들은 말하자면 ‘그 기초 위에서 우리들이 모든 우리의 다른 개념들을 형성하게 되는 어떤 유형들’이다. ‘신체에 관련해서 우리는 오직 연장의 관념만을 갖게 되는데, 이는 형태와 운동의 관념들을 함의하게 된다. 영혼만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오직 사유의 관념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지성의 지각작용들과 의지의 성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영혼과 신체를 함께 고려해보면 우리는 오직 그것들의 통합체에 관한 관념을 갖게 되는데 신체를 움직이는 영혼의 힘에 관한 우리의 관념들과 영혼에 작용하여 그것의 감각들과 정념들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힘에 관한 우리의 관념들이 다 여기에 의존한다.’<sup>21)</sup>

이 통합체는 데카르트가 다른 곳에서는 ‘실체적 통합체(substantial union)’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독자적인 하나의 단일체로 구분되고 환원 불가능한 범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엄밀한

21) 1643년 5월 21일의 편지, AT III 665: CSMK 218.

의미에서 감각의 현상은 신체에 속하지도 않으며 정신 또는 생각하는 사물의 본질적 개념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인간들은 신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하나가 다른 하나와 나란히 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서로 가까이 놓여있음으로써가 아니라 진정한 실체적 통합에 의해 구성된다. . . 만일 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단일체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와 영혼을 서로에게 결합시키는 이 통합은 인간에게 우유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며 이는 사실상 통합이 결여된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sup>22)</sup>

『철학의 원리』에서 그의 혼란된 감각들이 통합체에 “관련되어” 있음에 틀림없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통합에 대한 [여섯 번째 성찰]의 증명은 오직 어떤 특정한 부류의 그러한 감각들, 즉 그의 고유한 신체의 상태들에 관한 그의 “내적 감각들”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은 왜 이 논증이 색깔들, 소리들과 맛과 같은 감각적 성질들에 대한 외적 감각들을 제외한 이런 내적 감각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sup>23)</sup> 여기서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들에 대한 구별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텍스트에서 내적 감각들은 정념들과 함께 총괄되어 한 덩어리가 되고 외적 감각들과는 구별되는 반면 이후 『정념론』에서는 외적 물체들에 관련되는 지각들(외적 감각들), 우리 고유의 신체에 관련된 지각들(내적 감각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영혼에 관련된 지각들(정념들)의 세 가지로 다시 구별된다.<sup>24)</sup> 여기서 그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내적 지각들 이를테면 고통, 배고픔, 목마름과 같은 것들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것 고유의 것으로서의 특수한 신체를 고려하도록 이끌어간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 [여섯 번째 성찰]에서 데카르트가 강조한 것은 단지 신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순

22) 1641년 12월, 레기우스에게 보낸 편지, AT III 460: CSMK 201

23) 『철학의 원리』, IV. 190-98, AT 8-1: 316-23.

24) 『정념론』 PS 1.22-25, AT 11: 345-48.

수한 지성이 같은 방식으로 신체와 스스로 연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신체에 관한 감각적 성질들에 대한 혼란된 외적 감각들을 갖고 있는 영혼이라도 그러한 감각들에 의해서만 지각하는 어떤 또 다른 신체에 대해서 그 영혼의 능력을 벗어나 이 신체에 복속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체와의 통합을 드러내는 것은 내적 감각들이 혼란되어 있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영혼이 신체와 “하나의 단일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감각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혼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의 가르침이 제한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신체와의 단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우리의 감각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렇게 결합되는지의 방법을 자연이 가르쳐준다는 주장은 여기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데카르트에게 있어 일상의 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우리에게 영혼과 신체의 통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 . . 일상생활과 대화이며, (그러므로) 또한 (이 문제에 관한 한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성찰을 자제하는 일이다.”<sup>25)</sup> 여기서 데카르트는 현실과 괴리된 유령의 인식론이 자리잡고 있는 영역과 통합체로서의 인간이 참다운 도덕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도덕학의 영역이 새로운 도메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단순히 데카르트의 기존 해석들에 적합한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도덕학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주류 철학사에서 합리론이든 경험론이든 엄격한 도식에 맞추어 철학자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할 필요와 접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간과해 온 그 동안의 큰 흐름은 코팅엄의 지적대로 이런 데카르트의 면모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얼마간 제공했다고 할 것이다.

25) 1643년 6월 28일 엘리자베트에게 보낸 편지, AT III 692: CSMK 227.

## 4. 감각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적을 제외하면 외적 물체들은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신체의 기관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만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신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감각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시각, 청각, 그리고 다른 감각적 능력들을 “감각적인” 영혼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부분에 할당하였는데 이 영혼은 인간과 동물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빨간 사과를 이룰때면 시각 기관(통상 눈의 투명한 수양액이라고 생각됨)에 작용하는데 이 기관은 색깔의 종(species)을 뇌실에 전달하게 되고 따라서 상상(imagination)과 기억(memory)이라는 내적 감각들에 전달하게 된다. 데카르트는 감각(sensation)과 감각적 영혼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모두 거부했다. 신체의 측면에서 감각은 감각 기관에서의 움직임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데카르트는 『인간론』(*Treatise of Man*), 『굴절광학』(*Dioptrics*) 『철학의 원리』(*Principles*)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신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특수한 양태(mode)이다.<sup>26)</sup> 여기서 감각가능한 성질들(sensible qualities)의 관념들은 흐릿하고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가 [여섯 번째 성찰]에서 논증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현존을 증명할(demonstrate) 수 있는 것은 감각에 호소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는 감각들이 정신의 수동적 능력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들은 정신 그 자체만으로는 야기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그것들이 연장적 사물들 또는 물(신)체들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을 고치기 힘들 정도로 뿌리 깊게 각인하고 있다. 신은 그러므로 만일 그가 그러한 감각들을 스스로 야기한다면 또는 그것들을 물(신)체와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되도록 허락한다면 기만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감각들의 원인은 우리의 육체들이며 또한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26) 『철학의 원리』, Part I, art. 53.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여섯 번째 성찰]은 세상에 관한 더욱 상세한 주장들로 그러한 보증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과학적 탐구에 있어 감각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데카르트에게 있어 감각들은 대부분 육체의 건강과 생존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지침들인 도구들이다.<sup>27)</sup>

데카르트에게 있어 고통(*douleur, dolor*)은 외적 감각들 가운데 하나인, 촉각의 기관들에 의해 야기된 영혼의 느낌인데 이는 그것을 야기하는 대상은 별개로 하고 결코 그것에 대응하는 육체적 과정과 닮지 않는다. 생리학적 수준에서 보았을 때 쾌락과의 차이는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쾌락적인 감각(*sensation*), 즉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야기된 감각은 만일 그 신경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진다면 고통으로 변한다. 실제로 “우리는 때때로 기쁨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간지러운 감각들을 얻게 될 수도 있다.”<sup>28)</sup> 여기서 고통의 감각은 대상의 그림이 아니며(신체의 과정도 아니며) 나아가 모든 감각과 지각의 원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고통은 신체에 있지 않으며 오직 정신 또는 오성(*understanding*)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또 정념들처럼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 고통의 느낌은 “처음 영혼 속에 슬픔의 정념을 낳으며 다음으로 고통을 일으킨 것에 대한 미움을 낳으며 마지막으로 그것을 제거하려는 욕망(*desire*)을 낳는다.”<sup>29)</sup> 따라서 고통은 이차적인 반응이며 육체적인 상호작용의 순전히 물리적인 과정과 판단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고통과 관련되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명확하지 않은 판단들”(이를테면 고통은 “내 발에” 있다는 것과 같은)이 오류가 있고 어린 시절의 선입견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판단들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도록 도와준다. “자연에 의해 본성적으로 주어진 감각 지각들의 고유한 목적은 단순히 정신

27) [여섯 번째 성찰], AT VII 83; CSM II 57.

28) 『정념론』 II art. 94, AT XI, 399.

29) 『정념론』 II, art. 137, AT XI 430; cf. 『성찰들』 VI, AT VII, 88.

이 그것의 한 부분이 되는 복합체에 대해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그 부분으로서의 정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런 한에서 그 지각들은 충분히 명석하고 판명하다.”<sup>30)</sup>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은 우리에게 고통과 다른 감각들을 준 것에 대해 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고통의 느낌들이 데카르트에게 있어 정신 하나만 또는 신체 하나만 가지고는 생기지 않는, ‘정신과 육체의 밀접하고 친밀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혼란한 지각들(confused perceptions)’의 가장 중요한 예라는 점이다.<sup>31)</sup> 그런 혼란된 지각들의 완전한 목록에는 첫째,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식욕들,<sup>32)</sup> 두 번째, ‘이를테면 분노, 기쁨, 슬픔과 사랑의’ 정감들(emotions) 또는 정념들<sup>33)</sup>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고통, 즐거움, 빛, 색깔, 소리, 냄새, 맛, 열, 단단함과 다른 촉각적 성질들에 대한 감각들과 같은 모든 감각들’<sup>34)</sup> 이 포함되어 있다. 데카르트가 그런 감각들에 역점을 두려 애쓰는 주요 사항들 중 하나는 한 편으로 영혼 속에서 발생하는 관념들(ideas)과 다른 한 편으로 관련 의식 경험들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세계에서, 또한 신경 체계에서의 사건들 사이에는 전혀 닮은 점이 없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고통의 감각은 우리에게 ‘자연(nature)’이 부여한, 신체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가치있는 표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up>35)</sup> 그러나 그는 또한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외부에 위치하는 물체들(bodies)의 본질적 본성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들을 위한 신뢰할 만한 시금석들’으로 간주한다면 우리가 그런 감각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기가 쉽다는 사실 역시 강조하고 있다.<sup>36)</sup> 감각 자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30) 『성찰』, VI, AT VII, 83.

31) 『철학의 원리』, Part I, art. 48.

32) 『성찰』 [여섯 번째 성찰], AT VII 81: CSM II 56.

33) 『철학의 원리』, Part I, art. 48.

34) 같은 책, 같은 곳.

35) AT VII 76: CSM II 52.

36) AT VII 83: CSM II 57-8.

것은 데카르트 철학에 있어 일관된 주장이며 또한 그것은 그가 자신의 초기 작품인 『세계론』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외부의 물체들에 의해 접촉한 경우 우리 정신 속에서 형성된, 간지러움이나 고통의 관념들이 이런 물체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 잠들어 있는 어린 아이의 입술 위로 깃털을 부드럽게 지나가게 해서 그가 간지러움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자.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지러움의 관념이 이 깃털 속에 현재하는 무엇인가를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온다. 전투가 한창일 때 그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부상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가 냉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통증을 느끼고 자신이 상처 입었다는 것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의 갑옷을 벗긴 후 그 병사를 진찰할 외과 의사를 부르고 우리는 결국 그가 느꼈던 것은 그의 갑옷 밑에 끼어서 그를 누르고 불편하게 했던 버클이거나 끈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그가 이 끈을 느끼게 하는 데 있어 그의 접촉감이 그의 정신 속에 그것에 대한 심상을 새겨놓았다면 외과의사가 그에게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sup>37)</sup>

그는 불에 의해 생겨난, 대상과 지각자 사이의 거리에 의존하는 따뜻함과 그에 이은 통증의 느낌들에 관한 설명도 자세히 개진하고 있다.<sup>38)</sup> 데카르트는 세 가지 주요 결론들을 이끌어낸다. 첫째, 대상에서부터 지향적 형상의 관찰자에게로의 이행을 가정했던, 감각 지각에 대한 스킨라학파의 이론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감각 인식의 본성은 그로 인해 뇌의 상태들이 영혼에 있어 완전히 다른 의식의 경험들을 초래하는 신에 의해 정해진 규칙(institution)에 관련해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셋째, 물질(matter), 또는 일반적으로는 물체(body)의 본성은 그것이 단단하거나 무겁거나 색깔이 있는 것, 또는 어쨌든 감각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에

37) AT XI 6: CSM I 82.

38) AT VII 83: CSM II 57.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이, 넓이 그리고 깊이로 연장되는 것이라는 점에 놓여 있다.<sup>39)</sup>

데카르트는 반드시 모든 심리적 과정들이 비물질적인 정신 또는 영혼에 속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감각뿐만 아니라 상상 역시 순전히 정신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육체를 가진 창조물, 즉 인간인 한에서의 나에게 속하는 하나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여섯 번째 성찰] 에서 그는 ‘내 속에 들어있는 상상의 능력은 오성(이해력)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내 고유의 본질 즉 정신의 본질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적고 있다.<sup>40)</sup> 오성, 또는 지성은 데카르트에게 있어 물리적 基質(substrate)이 없더라도 작용할 수 있는 순수한 인식 능력이지만 상상은 대조적으로 신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sup>41)</sup>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상상할 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심상이라는 면에서 그것은 의식에 현전한다. ‘내가 하나의 삼각형을 상상할 때 나는 단순히 그것이 세 변들에 의해 둘러싸인 하나의 도형이라는 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는 또한 마치 그것들이 내 앞에 현전하는 것처럼 내 정신의 눈으로 세 선들을 본다.’<sup>42)</sup> 이는 차례로 데카르트가 ‘정신의 독특한 노력’<sup>43)</sup>이라고 부른, 상상에 있어선 필수적인 것과 연결된다. 실제로 어떤 것을 눈에 보이게 하려면 나는 그 관련 심상을 정신 앞으로 ‘오게’ 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과 습관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단지 간접적인 조정밖에 할 수 없는 뇌 사건들의 발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하나의 삼각형을 상상할 수 있지만 삼각형을 상상하는 일은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오성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과정으로서 그러한 생리학적 억압기제들에 수반되지 않으며 따라

39) 『철학의 원리』, Part I, art. 4

40) AT VII 73: CSM II 51.

41) AT VII 72: CSM II 50.

42) 같은 책 같은 곳.

43) 같은 책 같은 곳.

서 ‘정신이 아주 혼란된 방식으로가 아니라면 뇌 속에서 천개의 선들을 새기거나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런 도형을 (눈에 보이게 할) 상상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천각형(chiliagon)이 의미하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데카르트는 1641년 7월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 기능들 사이의 구별을 적절하게 집약해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의 심상도 갖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건 순수한 정신의 한 관념(une idée du pur esprit)이며 또한 우리가 심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건 상상의 관념이다.”<sup>45)</sup>

이러한 문제는 곧바로 자아의 문제와도 연계된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생각하는 사물로 규정한 후 긍정이나 부정 등외에 상상하고 감각 지각을 갖는 것도 생각하는 사물이 하는 일의 목록에 추가하였다.<sup>46)</sup> 그러나 이 두 가지 기능들은 후에 [여섯 번째 성찰]에 가서 그것들만의 특수한 범주로 다루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감각적 속성들, 보고 듣고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하는 일과 같은 것에 관해서라면 우리의 육체와의 연관성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친밀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데카르트 자신도 인정했듯이, ‘배 속에 있는 선원처럼 단지 육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그것과 뒤섞여 있는’<sup>47)</sup> 것이다. 상호 배타적인 실체들로 추정된 정신과 육체 사이의 관계는 이와 같이 데카르트에게 있어선 대단히 일견 모순적이기까지 한 결론을 보여준다. 비록 양립불가능하고 또 완전히 다른 본성을 지녔다 해도 그것들은 감각을 지닌 인간 피조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결합되어 있고 뒤섞여 있다’고 하였는데 데카르트는 후에 더욱 강력한 용어인 ‘통합’이라는 용어로 발전시키고 있다. 정신과 육체 사이의 ‘실체적 연합 또는 통합(substantial union)’이라는 관념은 데카르트가 엘리자베트 공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는데, 그녀는 앞서 본 것

44) AT V 162: CSMK 345.

45) AT III 395: CSMK 186.

46) AT VII 28: CSM II 19.

47) AT VII 81: CSM II 56.

처럼 그에게 '어떻게 영혼은 단지 생각하는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행동들을 수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였고<sup>48)</sup> 이후 한 통의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논증들이 지금껏 영혼과 육체 사이의 구별을 입증하는 데 폭넓게 관여해왔지만 그런 구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각자는 또한 '그가 철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내부에서 변함 없이 경험하는', 영혼과 육체 사이의 '통합(union)'이라는 관념 역시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이들은 그가, 사고는 육체를 움직일 수 있고 또 그것에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본성적으로 그렇게 관계 맺어진 육체와 사고를 함께 가진 단일한 개인이라고 느낍니다.'<sup>49)</sup> 이런 데카르트의 태도 속에서 보이는 역설은 사실상 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 경험은 우리에게 그와 정 반대되는 것, 즉 통합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그 두 입장이 다 옳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를 이후 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데카르트는 모든 관련 사실들이 자신의 분류 도식 내에서 화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는 사물들에 관해 오직 두 가지의 궁극적 부류만을 알고 있는데 첫째는 지성적인 또는 생각하는 사물들(intellectual or thinking things)이며 둘째는 물질적 사물들 즉 연장적 실체 또는 육체에 속하는 것들(material things, i.e. those which pertain to extended substance or body)이다. 지각과 의지 그리고 지각하고 의지하는 두 가지 모두의 모든 양태들은 생각하는 실체에 관련되며 반면 연장적 실체에는 크기 즉 길이, 넓이, 그리고 깊이에서의 연장, 형태, 운동, 위치, 구성 부분들의 분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자신의 내부에서 정신 하나에만 또는 육체에만 관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어떤 다른 사물들이 있다는 것 역시 경험한다.

48) 1643년 5월 21일의 편지, AT II 664: CSMK 217.

49) 1643년 6월 28일의 편지, AT III 694: CSMK 228.

이런 것들은 . . .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의 친밀한 결합으로부터 . . . 발생하며, 또한 첫째,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식욕, 둘째, 사고 하나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정신의 정감들 또는 정념들, 예를 들어 분노, 기쁨, 슬픔, 그리고 사랑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감각들, 이를테면 고통, 즐거움, 빛, 색깔들, 소리, 냄새들, 맛들, 열, 딱딱함 그리고 다른 촉각적 성질들에 대한 감각들을 포함한다.<sup>50)</sup>

세 번째 범주, 즉 정신과 육체의 실제적 통합체에 관련된 범주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는 임무는 데카르트의 마지막 주요 저작인 『정념론』(1649)에서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식욕들, 정감들, 그리고 정념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세목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정념론』에서 데카르트는 자주 정신이 육체에 대하여 인과력(causal powers)을 갖고 있다는 것(예를 들어 정신은 육체가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과 또한 육체는 영혼에 관련하여 인과적 효력을 갖는다(이를테면 정념들과 느낌들은 피와 신경 체계 속의 물질적 사건들에 의해 ‘자극받는다.’)<sup>51)</sup>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송과선(Pineal Gland)에서 시작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운동들이 뇌와 육체의 다른 부분들로 전이될 수 있는 많은 메커니즘들을 설명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그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육체적 자극들이 영혼으로 하여금 분노 또는 공포와 같은 정감들을 느끼게 만드는 신경 체계와 뇌에서의 변화들을 일으키는 생리학적 메커니즘들을 기술하고 있다.<sup>52)</sup>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정신-신체의 관계들은 이와 같이 과학에 대한 데카르트의 ‘일반적’ 이해 개념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관련 사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과 작용들이 아니라 신에 의해 명령된 상호 관계들이 갖는 본성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점 때문에 그를 기회원인론과 비교하는 시각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앞

50) 『철학의 원리』, Part I, art. 48.

51) AT XI 360: CSM I 344.

52) 예를 들어 『정념론』, Part I, art. 39.

으로의 다른 연구를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 5. 나오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데카르트의 도덕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기초한 인간이해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에 기초한 정신 우위의 인간이해만으로는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식욕들로부터 분노, 기쁨, 슬픔과 사랑의' 감정들 그리고 고통이나 즐거움과 같은 인간의 정념과 관련된 도덕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그의 정신과 신체의 '실체적 통합체'에 관한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는 정신으로서의 '나'가 아닌 정신과 신체의 '실체적 통합체'를 참된 인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통합체의 구조와 정신물리학적인 처리업무에 대해 논의한다. 정신과 신체에 속한 사유와 연장 이외에 이 '실체적 통합체'로서의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정신만의 또는 신체만의 개별적인 활동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통합체의 고유한 영역을 제시하였다. 즉 감각이다.

고통이나 배고픔과 같은 감각지각들은 데카르트에게 있어 정신 하나만 또는 육체 하나만 가지고는 생기지 않는, '정신과 육체의 밀접하고 친밀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혼란한 지각들(confused perceptions)'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결국 이런 감각의 문제는 데카르트의 인간이해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재고해야 할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특히 그의 도덕론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참된 인간 이해에 기초를 둔 도덕론의 완성을 위해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생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논의를 제공하려고 했던 데카르트의 입장을 생각할 때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에 바탕을 둔 정신 우위의 형이상학만으로는 그의 인간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연구, 특히 도덕론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데카르트 연구에 있어서의 이원론적 관점에서의 편향적인 태도를 재고하고 일부나마 데카르트 연구의 균형을 잡아보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참고문헌

[1차문헌]

AT: *ŒUVRES de DESCARTES*, publiées par ADAM Charles & TANNERY Paul, Paris: Vrin, 1974.

CS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I, II*, Cottingham J., Stoothoff R., Murdoch D.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CSMK: *The Correspondence: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III*, Kenny Anthony 외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Aristotle, Ross, W.D. ed. & Smith, J.A. trans., *De Anima in The Works of Aristotle, vol. III*,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8.

[2차문헌]

Cottingham, John, 정대훈 역, 『데카르트』, 서울: 궁리, 2001.

\_\_\_\_\_, *A Descartes Dictionary*, Oxford: Blackwell, 1993.

## **The Problem of Pain and Hunger in Descartes's Moral Theory**

**- From Metaphysics of Mind to Moral Philosophy of Human beings.**

Lee, Kyung-Hee

Descartes's Moral philosophy is closely related to his theory of human beings. He presents 'sensation' besides thought and extension based on the dualism of mind and body. Sensation is the thing that is not occurred from only mind or body individually. Sensation can be occurred from the union of mind and body, that is, from the 'substantial union.' Descartes regards the 'substantial union' as the true human being. Descartes took pains to give the theory of the interaction between mind and body through sensation in order to complete his moral theory founded on the tru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We cannot sufficiently understand his theory of human beings solely by the metaphysics of the superiority of mind (to body) based on the dualism. Through this study connected with his moral theory, I aimed at, though in part, bringing into balance of the understanding of Descartes's theory of human beings.

**Key words:** Descartes, human beings, Moral theory, dualism, substantial union, sensation.

철학탐구 제31집

이경희 e-mail: ockham@lycos.co.kr

투 고 일	2012년 05월 07일
심 사 일	2012년 05월 16일
게재확정	2012년 05월 21일